

-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으로
- 1、教会에革新을
 - 2、社会에變革을
 - 3、世界에所望을

오순절과 기독교회

최정수목사

성경의 교훈대로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회개한 사람과 함께 역사하시는데서 시작되었다 (행 2:4) 「저희가 다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베드로사도는 비겁증에서 성령의 힘으로 대설교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2:38)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셨으니 이는 속죄함을 예수님의 보혈로 받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 활동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것이다 교회의 시작이요 교인의 생성은 성령의 역사로 시작한것이요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교회가 참교회 산교회 증세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었다 한다 (행 1:8)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 성령과 같이 일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되 우리죄인의 구주로 증명하되 십자가에서 희생이되어 대속을 베푸시고 부활하심으로 영명할 죄인에게 증생의 길과 영생의소망을 의르시고 재림하심으로 각사람의 선악을 심판하사 의롭게 된자를 영생으로 무궁한 천국의 백성으로 영광의성을 입히시며 믿고 증생치못함으로 주님보시기에 의롭지못한 사람은 영벌에 처하시리라 (요한 20:21-22)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후에 막망하며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 힘을 내주시며 「너희가 뉘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시어 자신의 평강을 제자에게 주신동시에 다른사람을 용서할수있는 능력을 주셨읍니다 오늘날 예수교회라고 하는 곳에 형제를 용서할줄모르고 죄인을 만드는 사람이 어찌 그리 많은지? 성령이 역사하시지 아니하는증거이니 곧 성령을 겸손한 맘으로 받아드리지 아니하고 자기중심인 사람의 권력주의와 방종한 자기 멋대로 말하고 덤비는 사람이 많은 증거가 아닌가? 자기도 평안치 못하고 다른사람도 불행케하는 사람이 어찌 많은지 우리주님은 자유를 주사 타인을위하여 봉사하여 구원을 얻게 할려고 전심전력을 하셨다 마는 오늘의 교회에 양군을 해치고 교회를 절적으로나 양적으로 망치는 주장자가 많지아니한가? (요14:26-27)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것을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너희에게 말한 모든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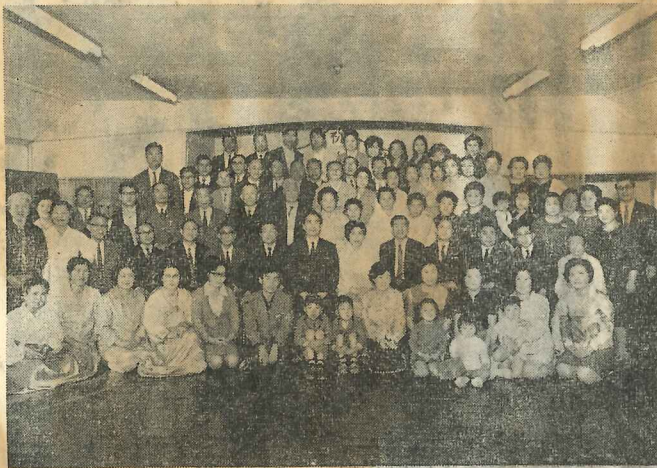
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것은 세상이 주는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근심도 말고 두려워 하지도 말라」 하셨다
성령을 받고 더불어 삽시다 성령은 죄를 이기게 합니다 (갈라디아5:22-24)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자기와 정과욕심을 십자가에다 못박고 매를 얻든지 못얻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시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함시다 오늘의 사람들은 교훈도 경책도 받지 아니 하려한다 그러나 영생을 얻고저하는 교인들을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겸손하게 받아들여 거듭난 사람이 되도록 힘써시다 교회의 부흥은 여기에서 시작될것이다

折尾 교회에

김형식 목사 위임

오랫동안 목자가없이 지나오던 折尾교회에서는 금번 水島교회에서 수교하시든 김형식목사님을 청빙하게되니 지난4월 20일 (일) 오후 3시에 위임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당회장 홍영기목사의 사회로 최창화목사의 기도와 성경봉독이 있은후 지방회장 김덕성목사의 「선한목자와 선한 양」이란 제목으로 설교가 있었고 이어서 지방회장의 사직하 목사로서 오리오교회 신도들에게 서약이 있은후 한재수목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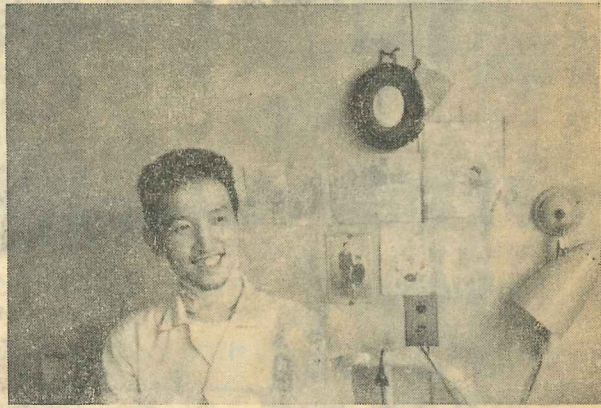
위임목사에게 감독삼목사가 오리오교인들에게 각각 권



신도를 찾아서

그리스도를 따라

(1) 세상으로



洪陽三 집사

부친이 돌아가실때 신자가 되

관련청년회의 춘기 수양회의 장소를 보러갔다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입원중인 홍양삼집사를 찾아갔다
목에 붕대를 감고 침대에 누워 있었으나 기자를 보고 일어나 병인답지 않은 생생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한다 「기독교 신자가 된 원인은 아버지의 사망이야 1962년 10월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된다」라고 들었고 12월달 돌아가시는 날까지 아주 열심히 교회에 나가 자기의 지난 일주일간을 반성했다」
일찍이 모친을 잃고 남동생들과 누이동생 하나

를 이끌고 살아나가야 할 책임감도 있어 나아 갈길을 하나님께 맡기게 된것인 모양이다
지금은 부인과 딸 셋 그리고 동생들과 함께 「비닐공장을 경영하고 있다 枚岡교회에서 집사로 봉사하며 또 관련청년회의 회장일도하며 아주 바쁜몸으로서 호리호리한 몸에 어디에서 그러한 힘이 나오나 의문이 된다 1941년 4월 16일 大阪에서 출생 교향은 충청북도 아주 젊다 더욱 우리교회에 그 젊은바람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
—인—

면의 말씀이 있었다

더욱 이날에는 한국에서 오신 재종목 강상우 열기현 세분의 단기전교사들도 참석하시었다 오리오교회는 1650년 6월25일 바로 한국동단이 일어난 그날 오리오교회 간판을부치고 전도시작을 하였다고 한다

그후 약 19년이란 긴동안에 이종현목사님을 위임목사로 약 2년 남어지 모신일 외에는없고 거이 무목으로 자라난 교회이다
그동안 여러집사님들의 믿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봉사와 눈물겨운 기도와 노력으로 교회는 지금과 같이 실력있는 교회로 잘아나게 된것은 실로 놀랄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금번 위임한 김형식목사는 아직 젊은 청년목사로 일본에서 신학을 마친후 서독에서 3년동안의 유학생활동을 마치고 귀일한 전도가 양양한 성실한 일꾼으로 금후의 활동이 크게기대되는 바이며 서남지방회로서도 좋은일꾼을 얻게됐다

관 서 지 방 기 도 수 양 회

관서지방회에서는 지난 5월 4일 오후부터 5일까지 白 浜 上樺温泉에서 지방회내 각 교회에서 모여온 성도 155명이 참가하여 과거에 없었던 의의집고재미있는 기도수양회를 가졌다 (이온권은 大阪교회 김경주집사님이 지난 3월부터 경영한여 판이다)

특히 이번 집회를 통해서 깨달은것은 하나님을 원하시는 일이라면 모든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었다 일본사회에서는 5월3-5일은 연휴일로 여행객이 초만원으로 50명의 큰 단체가 움직이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일이였다 벌써 1개월전부터 기도수양회에 참가자들의 편리를 마련키 위하여 国鉄에 여러가지로 교섭했으나 단체객의 좌석권은 겨우 69명분 밖에 차지 못했다 집회일자요일인 신정된 참가자수는 140명이 넘었고 도저히 어찌는 수가 없었으나 여러모로 문의한 결과 기적적으로 좌석권이 있어서 매우 순조롭게 되었다

4일에 오전예배는 각교회에서 보고 天王寺역에서 오후 3시차로 출발하여 樺에 도착하니 上樺역에서 마중나와 무사히 회장에도 착했다 기도수양회 주제축에서는 만만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인수에따라 곧 각자의 방에 배정되어 복잡한 일이없었다

저녁식사를 마친후 김원치목사의 사회로 개회예배를 시작하여 관서지방회장 정인수목사의 마태18:18-20를 봉독하고 「기도는 생활의 일과이다」라는 감명깊은 설교가 있었다 다음에는 윤종은목사의 기도수양회에 관한 설명과 다른집회에서는 볼수없는 마음문을 열어주는 시간으로 16명의 이야기들 특히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과 교통하자는 각자의 고백들이 있었다 곧 이어서 백창근목사의 「기도생활」이라는 본 수양회주제하에 재미도 있고 은혜에 넘치는 성경강의에 11시가 되도록 모두가 피곤한것도 잊어버리고 시간가는줄도 모를 정도였다 11시부터는 취침과 자유기도 그리고 자유로 야간에 온천에 들어갈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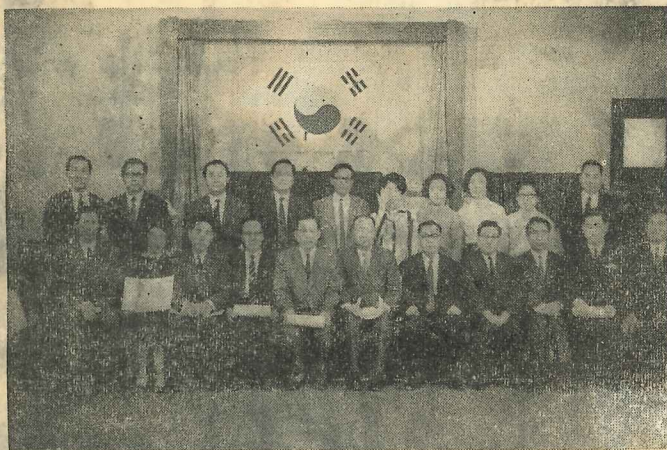
5일에는 아침 7시 30분부터 김원치목사의 사회로 기도회가 있었고 아침식사 후에는 10분단으로 나누어 목사들의 인도에 따라 서로 위하여 연속기도가 있었다 다시 한자리에 모여 피차 받은바 은혜를 나누는 시간과 계속하여 제직간담회에 들어가 회제직분예판하여 김관옥장로 서기직분에 관하여임학주장로 봉사에 김원치목사 축조전도에 최충식강도사의 발제가 있은후 여러사람들의 기탄없는 제언과 활발한발언 요망들이 있어 참가자들은 너무나

이 신앙생활의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기도수양회는 영육간 새로운 힘을 얻는 뜻있는 집회였다 앞으로는년간한번은 이러한 기회가있기를 바란다 순서의 마지막으로 기원형목사의 「우리 자신을 살리는 길은 기도뿐이라」는 뜻깊은 설교로 폐회했다

참가자중 목사12명 전도사2명 총합인수155명였다 특히 회장을 제공해주신 上樺 旅館주 김경주집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關 西 地 方 教 育 大 會



사진은 표창을 받은 교사들

지난 4월29일 오전 10시부터 大阪府립대학에서 회장으로하여 제일대한기독교회 선교 70주년을 향하여 교육의 자세를 지향하는교육대회를 거행하였다

개회예배에 배기환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관서지방회회장 정인수목사의 「아는 것과 증거하는것」이라는 감명깊은 설교가 있었다 예배후 곧이어서 교회학교교사들의 표창식이 있었다

표창명단에 현역 10년이상 근속자로 민중삼 강성익 주철중 우영수 4명이었고 현역 5년이상 근속자로 이성기 정기룡 김용성 김정희 윤영자 김진옥 김결웅 김순희 임포구 11명였으며 근 2년전까지 10년이상 근속자로 김재술 김관옥 김수동 정주자 김정희 김주일 정경자 정영대 엄도훈 최혜진 윤신웅 11명였으니 합26명에게 표창장과 기념품등이 수여 되었다 이번 교육대회에 주장자로 同志社대학의 조교수樋口和彦목사를 모시고 「현

대에 있어서 기독교교육의 사명」이라는 주제하에 감명깊은 강연이 있었고 참가자들은 모두 오늘날 우리교회가 교육을 재인식해야겠다는 정신이 일어났다

오후에는 대회에 참가한자들을 4분단으로 나누어 즉성인교육 청소년교육 가정교육 그리고 교회학교교육에 관한 발제들이 있었고 이에대한 진지한 토의와발언이 있었다 대회를 통해서 얻은것은 오늘의 우리교회교육에 너무 무관심 하고있다는 것을 깨

이영숙 여전도사 취임

한국 기독교 장로회 여신도회에서는 우리 총회내 여전도회 연합회를위해 이영숙 전도사를 장기적으로 일본에 파송했다 그비용역시 한국기장여신도회 연합회에서 담당해주게되었다 앞으로 여전도회 연합회총무를 담당하여 활약하시게 된다

탈게했는것과 앞으로 교육에 더욱 힘써야 하겠다는것을 각자가 재 다짐 했다는것이다 폐회예배에 김원치목사의 설교에 오늘날 교육의 문제는 피교육자에게 있는것이라고 하기보다 교육자 자신에 더욱 무서운 암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교육자가 올바른 자세를 가질때 교회교육은 새로운 발전을 기할것이라고 하였다

모든 프로그램을 다마치니 오후 5시였다 참가자연 100명이였다 (문책 윤종은)

1969년도재일한국 YMCA 정기총회

지난 4월19일 오후 2시 30분 부터 東京都소재 재일 한국기독교 청년회는 그 강당에서 금년도 정기총회를 갖었다

김광수 부이사장의 사회로 정전회를 갖은후 유석준 이사장의 사회로 개최된 회의는 옥문석총무의사업 및 결산보고에이어 년간 1천120여만원의 예산을 보고하여 승인한후 신안건으로서 東京라는 국제성과 현대라는 시대성에 비추어 현 건물을 새로 고쳐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으로 앞으로 5개년계획과 모금 3억원이라는 예산으로 재건토록 한다는 이사회내의 건축추진위원회의 안을 승인하고 앞으로 이사회의 추진을 이사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였으며 현행 헌장중에 미비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이사 선거등 총회가 해야할 사무 처리가 없음을 지적하여 신년도총회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헌장을 개정하는 수속을취하자는 건의를 만장 일치로 가결했다

총회 직후에 임시 이사회가 소집되어 작년도 임원의 계속 유임과 관서지방 지회의 회원모집과 국어강좌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로 추진하기로 하여 그사업예산으로서 년간 30만원의 보조를하기로 결의했다 이사회에서 특기할 일은 신년도 부터는 각이사가 매월 1만원씩 의무적으로 본회사업을 위하여 특별찬조하기로 결의한 전이다

각 교회 축조전도

오는 5월25일은 오순절이니 이날 우리총회내 전교회가 일제로 각지역 동포에게 아래와 같이 축조전도를 하기로 되었다

▶축조전도 실시날자—5월 25일 낮 예배후▶배부자—각교회의 신자▶전도지—타 나라에 가보니 배부 ※전도지는 무료로 가정문서 선교회에서 제공함

1969년도 일반

장 학생 모집

本總會 奨學 委員會에서는 1969年4월부터 一般 奨學生을 募集하고 있으며 希望者는 案内要綱으로서 빨리 申請하여주십시오

- 1、資 格 高校生 또는 大学生으로서 成績이 優秀하고 生活이 困窮한 者
- 2、必要書類
イ)申請書(本委員會所定用紙)
ロ)生活調査表 (同)
ハ)所属教会牧師推薦狀 (同)

- ニ)前年度成績表
ホ)將來에 對한 希望 (400字原稿5枚程度 言語自由)

- 3、支給金額
大学生 毎月4,000円
高校生 毎月2,000円
- 4、募集人員 若干名
- 5、마 감 5月末日

《備考》
希望者는 東京都新宿区若宮町24 在日大韓基督教總會事務所內 奨學委員會로連絡하시면 所定用紙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969年4月26日
在日大韓基督教總會
總務 李 仁 夏



▶이영숙 전도사의 약력

본적은 경기도 인천이고 한국 신학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서 10년간 전도사로 근속했다



|||| ペンテコステにメッセージ ||||

::: 神は復活される! :::

WCC 議長団 共同の業で示唆

【ジュネーブ発=EPS】WC C(世界教会協議会)議長団は5月25日の聖霊降臨日(ペンテコステ)に際し、全文次のようなメッセージを発表した。同メッセージは「神は復活される!」と題するもので、セルビアのジャーマン大主教(ユーゴスラビア) ハンス・リルエ監督(ドイツ)、D・T・ナイルス博士(セイロン)、アーネスト・A・ペイン博士(イギリス)、ジョン・C.スミス博士(アメリカ)、W・A・ヴィッサートフト博士(スイス) A・H・ズールー主教(南アフリカ)の7人が署名している。

今日の使命と希望探る

「神は復活される!」これが1968年ウプラサで開かれたWCC第4回大会の基調であった。

常に活きおられる聖霊は教会への贈物について新しい理解に入らしめる。というのは、私たちは宇宙的な父なる神のもとで、聖霊の助けによって、すべての時、すべての民族、すべての場所、すべての状況で、人びとにキリストにおける組織的な生きた一致をもたらしとするキリストの新しい意図を見出したからである。

このことは、私たちがすべてのキリスト者の一致とともに、その希望において、その完成において、その不安と絶望において、この世(世界)に向って新しい開放性を求め続け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意味し、それはまた、私たちがキリスト教社会の人びとと同じ出発点に立って、人間生活の中で人間性をゆがめるすべての罪と人間的弱さを否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意味しているのである。

私たちは、より偉大な社会正義の実現と世界開発のため多くの人びとの争いの中に参加すべく、新しい責任を見出したのである。まず第一に、私たちは歴史の中にあって、回避できない委託として、人類の一体性を見るのであるその共通の使命とは世界の資源を適性に用い、すべての人びとがその分け前を受けることを確認することである。

私たちは、神への服従の実

験として、この責任を喜びをもって引き受けることを、すべてのキリスト者に勉める。私たちは、国際的または国内的な水準から適宜な組織を見出すために貢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すなわち教会としてあるいは個人として、開発基金づくりに犠牲的に貢献するため、その方法を見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少なくとも私たちは、兄弟たちの間に、人間の犠牲のありのままと、悲惨の悪循環を打ち破るための真の機会の認識を起さなければならない。

私たちは、聖霊が教会の中にも働いていることを信じている。聖霊はまた、私たちのすべての考えとすべての共同社会の絶え間ない革新に向って人びとのエネルギーをたたく導いている。聖霊は人間の苦しみを背負い、変革の力へと結びつける。聖霊は声なきものに声を与え、喧騒なるものには沈黙の尊さを教える。聖霊は、人びとの中に、神とその独り子の啓示を待ち望む思いをしみ込ませる。

そこで私たちは、「全体の益のため」(コリント I 12:7)に与えられた聖霊の数々の

贈物の中にあって讚美しようではないか。また私たちが招いておられる神は、私たちが何を言おうと何をしよう、神の業(わざ)をためすための想像、勇気、忍耐を私たちに与えてくださるから、望みを持とうではないか。

そこで、私たちはWCC第4回大会の祈りに「おいて一つになろうではないか。」

われらの父なる神よ、あなたはすべてのものを新しくされます。私たちはすべてをあなたに委ねます。あなたの愛がすべての人びとを包むゆえに、他者のために生きるよう、私たちに助けてください。まだ見ないもろもろの真理を求めようとしている私たちに助けてください。これまで、従わなかったが聞いたことのあるあなたの命令に服従できますよう、私たちに助けてください。あなたが与えてくださった友愛において、互いに信じ合えるよう、私たちに助けてください。そして、私たち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通じて、あなたの聖霊によって新しくかえられますよう祈ります。アメン。

..... ボンヘッファーの

神学的思考..... —7—

それは個人的な暴君暗殺に関するものであって、しかもそれが、始めは無かったものが、あとになって、断固として主張されるようになった事実である。それでは、いつ変化したのだろうか? ボンヘッファーは、1929年1月25日に行った、バルセロナでの講演「基督教倫理の根本問題」に於いて、決定的要素を排除しつつ、神の前で、徹底した責任ある決断をする人間を提示して、『悪なる行動自体というものは存在しない。殺人と云えども、聖化されることもありうる。存在するものは、神の意志に忠実であるか、遠ざかるかのみである』と語ったのである。そして特に『具体的状況に於いては、防衛戦争と云えども正当化される』とまで極言したのである。従って、非常時には、好むと

好まざるとに拘らず『我が民族の為の殺人と戦争は聖化される』とも語ったのである。

しかし、これらの言葉は決して個人的な暗殺を意味したものではなく、戦争に於ける殺人、つまり緊急時に自己の民族を防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かかる不可避免的な殺人を意味しただけであった。従って、このような立場より見る時、民族の為には、ヒトラーを歓迎して、独逸国民を抑圧する者たちと戦うことが、むしろ妥当なことであつたであろう。ボンヘッファーは、ヒトラーが宰相となった翌月、1933年2月1日に、ラジオ放送を通じて、神が与え給うた職務の限界を侵犯する者に対して注意するよう国民に警告をしたがこの時は、ヒトラーを殺していいというようには考えてはおらず、ただ、守り役的な教会の職務として警告しただけであった。又1932年の「教会とは何か」という論文に於いても、教会の職務つまり、政治に対する預言者の監視を要求したが、職務を侵犯する者は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考えは無かったのであるその当時のボンヘッファーの闘いは、政治に対するものであるというよりも、むしろ、自分たちに委任された責任を無視してしまっている教会内の敵つまり、自らを売り渡し国家権力と結託した独逸的基督者たちに対するものであった。「全集」(G.S.)によれば、ボンヘッファー、1933年より1940年までの間に「反キリスト」という言葉を12度までも用いたことになっているが、1940年夏に『ヒトラーは反キリストである』と明白に語った以外は全て、帝国監督ルートヴィヒ・ミラーが、その一派又は彼らの教会を意味したのである。そうだとすれば、神が与え給うた委任を侵害する者は、殺さねばならないと決心したのは、19

40年より以前だということになる。正確には一体いつのことであり、そのような思想転換の契機は何であつたのだろうか?

1934年夏、ファネ会議の時は「殺すな」という誠命を掲げて、戦争に参加することを回避しようとし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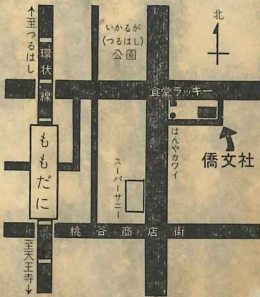
1936年4月22日の報告書には教会がキリストの教会として決断するようにと勧告しているものの、ヒトラーに対する暗殺を示唆したようなものは見当たらない。1937年3月の報告書を見ても、敵というのは反基督教的な教説を教える者を指しており、その敵に打ち勝つ方法とは決して暴力ではなく、抵抗を中断し、迫害には忍耐を以て為さねばならないとしたのである。この様な従来の態度が変わったとするならば、1939年6月の渡米を契機として変わったと見る他ない。ボンヘッファーは、自らの卑怯と弱さを反省し、神の恐るべき内的審判を痛感し、又苦悩した後には決断を下したという事は先に見た通りである。彼はこれを「大いなる決断」(アイネ・グロッセ・エントツァイデング)と呼び自らの斗争を戦争に例えて「壘壕」とまで言ったのである。彼は獄中書翰に於てこの決断に対して二度までも言及し、『1939年夏の決断とそれ以後に起ったいかなる事に対しても、決して後悔しなかった』という言葉を見てもその覚悟がいかに断固たるものであったかを察することができる。帰国してのち、彼は直ちに、政治的地下運動を開始し、その後2カ月足らずのうちに大戦が始つたのである。

—続く—

(岐阜教会 金承俊講道師)

6月から新社屋で
営業を行います

私たちは与えられた使命にしたがって、広報・伝達等の印刷することに全力をつくすべく励んできましたが、今度、よりいっそうの皆様のご要望に応えるよう、下記のところへ移転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以前よりも合理的に設備をととのえ、皆様にもっと奉仕できるようにがんばりたいと思います。



高 仁 鳳 曹 政 夫
林 季 成 林 芳 子

僑 文 社

大阪市生野区鶴橋南之町2-335
電話 大阪 716-5046 番



聖 書

家 庭 の 信 仰

ローマ 16:3~16

1. 母の日は1908年にアメリカの少女が日曜学校で父母を敬えの教えを受けたが母の死後それを思い出して、母親の記念家庭礼拝を始めた。それが全世界に拡がって母の日として守られ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小さい日曜学校の生徒の中に植えつけられたものが10数年経って母親の愛に感動されて思い起こされたのが全世界に拡がるとは実に幼少の信仰教育や家庭での信仰教育というものの威力を今更のように感ずるのである。今日の聖句に出て来る名前も、ローマの教会を支えた信仰の家庭名簿のようなものである。家の教会とか誰々の家とかという言葉や、パウロの同族のだけそれとか云ったように家庭ぐるみの信仰の家庭と見ることができる。それは勿論182人の家族のものが雪だるま式に家族ぐるみの信仰の家庭を築いたと見ることができる。

2. このようなるわしい家庭では必ず主婦である母親が家庭の中心になって信仰を導いたと見ても過言ではあるまい。信仰の家庭の典型のように言われるプリスカとアクラは夫婦であるが妻プリスカの名前が常に先に書かれている（行18:2、18、26第二テモテ4:19）マルコの母マリヤにしても自分の家庭を解放して教会にしていた（行12:12）そこでマルコという立派な信仰の子供が育てられた。（第二テモテ4:11）韓国の家庭は封建的で、嫁はとうがらしよりも辛い即ちつらい生活をしてながらそのつらさの中にも、その子供を育てる愛情は子供を感激させているし、父も親だけれども、母の愛には及ばないとの民謡が残っている。この母の愛情が今日の韓国の家庭を造って来たのである。

3. ルボスの母をパウロは自分の母でもあるといっているルボスはあの主の十字架を強制的に負わされたクレネのシモンの息子である（マタイ27:32、ルカ23:26）シモンはあれ以来熱心な信者になって、その婦人と子供ルボスとアレキサンデルを信仰的に育てたのである。（マルコ15:21）彼らはアンデオンにも教会を建てた。（行11:20、13:1）パウロはおそらくアンデオケで

ボスの母にお世話になったといえる。大使徒パウロをして自分の母であると云わしめる程彼の女は我が子ルボスと同様に愛し教会奉仕に熱心であった。クレネのシモンの家庭

がこのような良い働きをしたのは、シモンの信仰もさることながら、その妻の信仰の尊い働きが大きかった。

（西成教会 金元治牧師）

三今日の世界における教会の宣教三

講演 1. 教会の宣教についての聖書の根拠

..... 於 60周年記念 教職者研修会

2. 旧約聖書の記録

旧約聖書においてあらわされた神は、(a)一人格であり (d) ぞの方は人間と対話をし、(c) 人を彼の契約へと呼び出し、彼の奉仕へと送り出す方である。

アブラハムとの契約は命令と祝福の約束の二つを含んでいる。祝福は次々に他の人たちにも祝福されるよう与えられている。汝においてこの地のすべての家庭は祝福されるであろう。ここに他の人々のために存在する根本的な態度がある。われわれが国家をいやすため、また同胞の繁栄のために神の代理人となると、人生において最大の満足を見出すのである。

それではアブラハムの責任は何であろうか。それは従順であり、契約に忠実であり、自制することである。信仰とは決して受身でなく常にダイナミックなものである。彼の人生を通してアブラハムは宣教の根本的な精神を表わすのである。

モーセの召命（出エジプト三章）は神が彼を、彼の民に仕えそれにより人類に対する神の宣教の重要な場所を満すため、いかにしてモーセを呼び出したかという物語であるこれは選定の教義である。特権のためではなく仕えるため。それはこの世の業における神の仕え人となるべく、一人の人を選び国を選ぶことを意味している。人間が自分は全能者の計画の一部分であるということを意識することは、われわれが召命として知っているところのものであるそれは「私が福音を宣べ伝え、いなら、わざわざである」とパウロが言ったごとく、

宣教の第一の本質である。

旧約聖書の預言者たちも宣教の基本的な意義を示している。彼らは神の代弁者である預言者は自分自身を宣教にたずさわる者、彼の生きている時代のために神の言を宣べ伝えるべく、遣わされた者と見た。緊急さというものは、それが全部宣教にかかわった時預言者の基調である。アモスは猛烈な緊急性を含んで説教をした。それはあたかも神の霊が人間にとびかかり、彼を征服してしまうかのようである。

イザヤ書2:2~4は神の支配がすべての人の間にうちたてられるよう、すべての民族・種族が流れ来る広い都市としての神殿を描いている。このさばきにおける普遍的な神の支配は預言者たちにより全歴史がそれへと向って動いている終末として考えられているそれが人間の歴史の目的である。

捕囚：エレミヤは捕囚のことに大なる国家的災害は神のいかりのしるしでないと説く。それは神の計画の中で理解され得る。人間のつとめはそのプランを発見し、それに協力することである。神の関心は、また異邦人、つまり世の残りの者たちのためでもあり、バビロンの安寧（シャローム）はイスラエルの目的のために必要であった。その安寧のためにイスラエルはこれらの「他の者たち」のために神の前で行動的な宣教の責任を引き受けねばならないのである。

受難の僕之歌（イザヤ書42~53）はイスラエルを神がこの地上に宗教をうちたてるまでおとろえず落胆もしない（

イザヤ書42:1,4）神の選ばれた民として描いている。これらの歌は仕えることと受難することが僕の連命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これは神によっておしつけられた罰ではなく、他の者のための贖罪的行為である。それは受難者や僕をあがなうのではなく、仕えられる者や受難を加える人を

あがなうのである。これが教会の宣教である。つまり、人々に仕え、世の人々の手によって受難をうけるため、そしてこの方法によって世が真の人間性の意味を見出す手段となるのである。

—つづ—

（M・ランサム牧師
カナダ長老教会）

靖国神社法案反対声明書

この度、自民党が靖国神社の国営化をはかり、国会に上程しようとするに際し、在日大韓基督教会は、以下の所信を表明するものであります。

本来、宗教は個人の自由において尊崇されるべきものであり、国家が強制、ないし干渉してはならないものであります。従って靖国神社の国営化は国家宗教の制定につながり、「信教の自由」を否定するものであります。

さらに、わたしたちは、第二次大戦中日本の軍国主義が、国家神道を背景とし、アジアの侵略にのり出し、「神社参拝」問題によって韓国教会の「信仰の自由」が抑圧され

教会の本質さえも危殆に瀕せられたことを想起するものであります。今回の靖国神社の国営化は、かつての過ちを再び繰り返す危険性を醸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ので、わたしたちは、ここに強く反対を声明すると共に、日本がアジアにおいて、自由にして、民主的な平和国家として進むことを希望するものであります。

1969年 4月 16日

在日大韓基督教会総会
総会長 呉 允 台
東京都新宿区若宮町24
電 話 (269) 2 9 0 9

日本出入国管理法案 反対声明書

過日の日本政府の閣議によって、近々、国会に上程されようとしている出入国管理法案に対して、わたしたち在日大韓基督教会総会は、ただ単に、在日外国人としてのみならず、キリスト者としても、多大の憂慮を覚えずにはおられないのであります。

わたしたちは該法案を慎重に検討した結果、その内容と基本精神は、在留外国人を保護するという近代国際通念とは逆に、その活動の規制を強化し、抑圧しようとする意図

をもって、従来の日本出入国管理令を改悪立法化し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のみならず、基本的人権を侵害する危険性が多分にあることを憂慮し、キリスト教精神の立場からも黙していることはできず、ここに本教団は該法案の内容に対して絶対反対するものであることを声明します。

1969年4月16日

在日大韓基督教会総会
総会長 呉 允 台
東京都新宿区若宮町24
電 話 (269) 2 9 0 9



北部教会青年会ハイキング

大阪北部教会青年会では、5月5日奈良の「飛鳥」方面で野外親睦会を行なった。岡寺で河吉光会長の司会で簡単な礼拝が持たれた後、昼食をとりながら、楽しい語らいをかわしました。参加者は、新しい兄弟姉妹も加わり、22名という最近にない多人数が集い、フォークダンス、ゲームなども行ない、大自然の中で一日を楽しく過ごした。